

女高生の 신체발육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E” 여고 경우—

김 명 희

<이화여고 교련교사>

목 차

- I. 서 론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III. 조사성적 및 고찰
- I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학생들의 사회적 위치에 관하여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만큼 중요하다. 이들이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며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성과 덕목을 익히기 앞서 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

건강이란 인체가 단순히 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진실한 의미에서 건강한 것이라 하였다. 즉 이는 건강의 개념이 육체적인 것에서 전환하여 심신 내지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개인의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나아가서는 한 사회의 건강이 중요시 된 것이다.^{우1)}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 맞추어 지역사회발전과 자라나는 제 2세대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보다 실제적인 사회과학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계층학적연구로 이^{우2)}(1967), 권^{우3)}(1968), 박^{우4)}(1969), 박^{우5)}(1969), 오^{우6)}(1970), 그리고

윤^{우7)}(1973) 등의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도 타 분야에 비해 뒤 떨어져 있음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대에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심한 과외공부 등으로 중고교시에 각종 건강장애를 보유하게 되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학교 생활중 대학 입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일부 여자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한 신체검사 성적을 분석하여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통한 신체적 발달추이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될 학생들의 건강상태 파악 및 학교보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에 대한 조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E”여자고등학교(현의상 “E”여고로 기재) 학생 3,700명이었으며,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한 신체발달의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1970년도 3월에 입학한 15세군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1972년 17세까지의 3년간에 걸친 신체발달 과정을 조사하였고 피검자의 성별은 전부 여자이며 연령별 분포는 현의상 단 15세 이하의 고등학생은 15세로, 단 17세 이상의 학생은 17세로 환산하여 조사한바 제1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 즉 연령은 단 15세 31.9%, 16세 33.1%, 17세 34.7%를 차지하고 있다.

우1) 김영제 : 지역사회 의학교육, 제2회 의학 세미나에서 (1972)

2. 조사방법

각종 신체검사에 대한 결과는 문교부령으로서 의무화된 학교신체검사 규정^{주1)}에 의하여 1972학년도 각학년 전 생도에 대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의 협력을 얻어 5명의 숙련된 교사(2명의 양호교사, 3명의 교력교사), 세브란스 소아과 의사 8명 및 치과외에 의해 실시 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는 신체검사 결과를 원천으로 하여 문교부 72년도 조사보고^{주2)}와 일본 문부성의 조사보고^{주3)}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의 항목에 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한 신체 발달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이상 교육상의 제도개편(중학교 및 고등학교 평준화)을 결치지 않은 1970년도 15세군을 1학년, 1971년도 16세군을 2학년, 1972년도 17세군을 3학년으로 가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3년 간에 조사되고 시교육위원회에 보고된 체격검사 측정정보에 의거하여 학년별 신체발육의 차를 검토하였으며 70년도부터 72년도에 이르는 보고된 문교부 통계^{주4)}와 일본 문부성 통계^{주5)}를 자료로 한 신체 발달 추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조사항목^{주6)}

1) 체격검사항목 측정기구

신 장	Martin씨 신장계측계
체 중	체중계(감도 500g)
흉 위	200cm줄자(절제)
좌 고	Martin씨 계측계

2) 체질 검사 항목

조사부위	조사내용
· 눈	시력 · 굴절이상, 도라코요마 그 밖의 눈의 질환
· 귀	듣는 힘 장애 · 중이염 그 밖의 귀병
· 코 및 목	비질환 · 축농증 · 편도선 · 비대 · 선양증식증
· 피 부	전염성 피부병 그 밖의 피부병
· 치 아	삭은 이 · 치주염
· 그 밖의 신체이상 및 질병	
· 기생충 검사	

Ⅲ. 조사성적 및 고찰

1. 신체 계측

신체 형태의 대표적 계측치로서 신장, 체중, 흉위, 좌고에 관하여 조사한 성적은 제1표와 같으며 성장의 정도를 비교하고자 보고된 우리나라 및 일본인의 성장도 동시에 제시하였다.

1) 신 장

신장은 골격도란 의미로 후천적 내지 외부적 영향을 받는 일이 비교적 적은 대상이며, 따라서 신체적 성숙도를 알기에는 효과적인 것이다. 연령별 평균 신장의 측정 성적은 제1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 즉 15세의 평균키는 155.3cm였으며 연령 증가에 의한 키의 성장과정은 17세에서 평균 키가 156.8cm로 연령 증가에 의한 15~17세에 이르는 신장증가는 1.5cm로서 여자 중학생의 직선적인 성장에 비하여 여고생에 있어서는 신장의 성장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주4)}을 나타내었고 전국 및 일본의 신장평균치와 비교하여 볼때 일본의 여고생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전국 여고생의 평균치 결과 보고보다는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감을 주고 있으며 단 15세에 고등학교 입학한 후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신장의 성장은 [제5표],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여고생의 3년간의 신장발육은 0.9cm로서 서서히 증가한 바에 비하여 문교부 통계에 의한 전국적인 신장의 성장은 평균 4.7cm로써 3년간을 통한 발육은 체력 증진 정책 등으로 인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나타난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며 일본의 3년간 신체발달 추이에 다소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곤란하나 평균치가 전국 및 "E"여고에 비해 약간 저하한 것을 볼 때 신장은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영향에 의한 발달이라고 보면 ^{주5)}·문교부^{주6)} 등의 보고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여학생이 일본 여학생보다 신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제5표의 "E"여고와 전국과의 신장발달과정에서 "E"여고 1학년생은 전국에 비해 2.5cm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장속도가 전국에 비해 저조한 것은 학교보건상 유의하여야 할 점으로서 대학입시를 위해 무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고학년에 대한 건강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2) 체 중

체중은 전신의 종합적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주7)} 체격의 균형을 위하여서는 신장보다 체중이 더욱 문제가

주1) [1969. 7. 19. 문교부령 제241호, 1971. 5. 7. 문교부령 제 281호(개정), 1972. 5. 2. 문교부령 제294호(개정)]

주2) 문교부·문교통계 연보 p.858~859 1973. 12월 발행

주3) 문부성 : 일본교육연감 1973년도(소화 48년) p.552~553 제14권 교육신사

주4) 박재근 외 7명 : 한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력에 관한 기초연구,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6:21, p.278, 1969

주5) 박정빈·윤남식 : 한국 학생의 체력검사 보고서. 대한체육회, 1969.

주6) 문교부 : 한국 남녀 대학생의 신체적성에 관한 연구, 문교부 Vol. 15, 1969.

주7) 김재은 : 한국 아동 및 청년의 신체 발달의 유형, 이화여대 80주년 기념논문집 사회 과학편, p. 70.

되는데 본 조사에 의한 체중의 성적은 [제1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 즉 연령별 평균 몸무게 값은 15세 50.3kg였으며 연령 증가에 의한 신장 성장과정은 16세 52.6kg으로 2.3kg 증가한 것에 비해 17세에서 50.1kg으로 2.5kg 줄어들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전국의 여고생 평균치와 비교할 때 전국은 15세 49.4kg으로 "E"여고보다 0.9kg 적었고 16세 51.6kg으로 1.0kg이나 적었으나 17세에서 52.7kg으로 "E"여고보다 2.6kg이나 체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과의 비교에서 일본은 15~17세에 이르는 연령 증가에 의한 체중의 차가 1.5kg으로써 신장의 증가와 같은 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체중은 인체의 전 용량이란 의미로 신장보다는 중요도가 높다. 영양, 발육, 노동 등에 의한 일시차·계절차·생활 등의 여러 조건에 좌우되는 일이 많으므로 발달보다는 건강 상태의 검사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주1) 이런 점에서 "E"여고의 연령별 체중증가는 [제1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세군에서 전국 및 일본에 비해 높은 성장률 보이고 있으나 17세에서는 전국 및 일본에 비해 2kg 이상이나 체중이 감소된 현상을 볼 수 있으며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한 체중의 발달 추이를 보면 [제5표], [그림 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16세에서 3.5kg 증가하였으나 16~17세에서 3.3kg 하회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국 및 일본의 체중증가량과 비교하여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국의 경우 70~72년에 이르러 4.0kg이나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는 15~16세에서 1.8kg 높은 수치로 증가하였으나 16~17세에는 증가량이 부진하여 한국보다 0.4kg 적은 증가를 보였다. 즉 고학년에 이르러 체중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¹⁶⁾(1962)의 보고에 의하면 19세까지는 연령증가와 함께 체중이 증가된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16~17세에서 1972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제측치보다 년간 증가량이 하회하고 있음은 17세에 이르러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 연령이 되어서 많은 에너지 소비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연령에서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성장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가능하면 고학년에 이르는 여고생에게 지워주는 부담을 조절해줄 일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흉 위

흉위는 흉부의 발육이 양호한지 어떤지를 알기에 필요한 것으로 흉부는 심장, 폐장 등 중요한 장기를 포함하고 있어 생리학적인 면에서 체격이나 체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한 흉위의 성적은 [제1표]에 표시한 바와 같다. 즉 연령별 평균 흉위값은 15세 78.3cm, 17세 79.7cm로 15~17세에 이르는 연령별 증가율은 1.4cm로 김¹⁷⁾(1962), 김¹⁸⁾(1966)의 보고에서와 같이 여자에 있어서는 15세 이후 흉위 발육의 감속 연령에 달하여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과 일본의 조사와 비교하여 볼때 일본은 "E"여고보다 약간 높으며 15~17세에 이르는 연령 증가율이 1.2cm로 "E"여고와 비교적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국의 경우 신장 및 체중에서와 같이 2.2cm의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흉위의 발달 추이를 보면 [제1표], [그림 1—3]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전국이나 일본의 성장과는 달리 16~17세에서 흉위의 성장이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체중의 성장곡선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일한 이유로 생기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전국과 일본의 성장속도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72년도에 조사된 성적과 비슷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4) 좌 고

좌고는 중요한 장기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흉부 및 복부를 합친 부위를 나타내는 길이로서 체형의 문제 등의 견지에서 중요한 척도일 뿐 아니라 외적·후천적 경향이 많은 다리의 길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보다 더 바람직한 발육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앉은 키가 더 크다는 것은 발육이 양호하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주2) 본 조사 성적은 [제1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84.3cm로 17세에 이르기까지 1.3cm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서서히 증가하였다. 전국과 일본의 보고와 비교해 보면 신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에 비해 일본이 떨어진 증가를 보였으며 "E"여고는 전국에 비해 떨어지나 일본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좌고의 발달 추이를 보면 [제1표], [그림 1—4]에 기재한 바와 같이 16~17세에 이르러 전국의 경우 김¹⁷⁾(1962)의 보고에서와 같이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성장 곡선이나 "E"여고 성장 곡선에 있어서 성장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5) 신체 충실지수 판정주3)

이에 사용한 지수는 Rohrer씨가 발표한 신체 충실

주1) 김재은: 한국 아동 및 청년의 신체 발달의 유형, 이와 여대 80주년 기념 논문집 사회과학편, p. 70

주2) 이영자: 중·고등학생의 성장·발육과 영양 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Vol. 4, No. 2, 1967

주3) 대한 체육회: 새신체 충실지수표 대한 학교체육회 pp. 3~5

지수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다.

$$\text{지수공식} : \frac{\text{체 중 (g)}}{\text{신 장 (cm)}^3} \times 100^2$$

이 지수는 신장을 한 번으로 하는 입방체 중에서 체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는 골격·근육·내장 등의 충실성과 영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본 지수를 해석하는데 불편을 덜기 위해 5단계 판정급수(E. D.C.B.A)를 지수와 병용케 하여 지수의 의미를 보완케 하였다. 5단계 판정급수는 [그림 2]와 같은 정상 분포 곡선의 통계 이론을 적용하여 판정하였다.

[제2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학생의 79.5% 이상이 보통 이상의 충실도를 보이고 있으며 16세에서 76.7% 이상, 17세에서 70.4% 이상이 보통, 우량, 우수의 충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여고생의 충실도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E"여고나 문교부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17세군에 있어서 15, 16세군에 비하여 충실도가 하락되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외공부 등으로 인한 고학년에 있어서의 건강관리 소홀과 영양관리 불량상태가 저학년에 비해 격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체질검사 및 질병 이환율

학생에게 있어 육체적인 질병 상태는 그 병 자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외에도 이들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 큰 지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이러한 병적 상태에 놓인 학생을 되도록 빨리 발견해 더 악화되기 전에 올바르게 조치해 주는 일이 중요하므로 파종한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병적 상태가 문제되는지 육체적 건강상태를 알기 위해 진찰 결과를 비교 분석한 바 [제 3-1표], [제3-2표], [제 3-3표]와 같다.

1) 눈

양쪽 눈의 시력이 0.2가 되지 않는 약시에 있어서 15세에 17.21%, 16세 16.92%, 17세 25.51%로서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근시인 학생은 15세 9.44%, 16세 10.02%, 17세 8.02%로 나타났고 원시는 연령 관계로 여고생에게는 전혀 없었으며 난시가 전체 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19.0%에 해당되는 학생이 약시로서 17세군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며 전국의 수치와 비교하여 볼때 이상 시력자가 격증하고 있는 현상은 대도시에서의 입시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짐에 따라 무리한 눈의 피로에다 영양관리조차 소홀히 함으로 격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보건학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주1)

눈병에 있어서는 도라코오마는 전혀 없었으며 그 밖의 눈병으로 전체 6명이 나타났다.

2) 귀, 코 및 목

듣는 힘 장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귀병중 중이염이 전체 3명으로 전국에 비해 윤²⁾의 보고서와 같이 대도시의 학생들이 낮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상태 및 의료혜택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편도선 비대가 전국에 비해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어라 한 마디로 설명하기 곤란하나 윤²⁾의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력, 교통, 공기의 오염 등을 같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치아 건강상태

문병도가 발달됨에 따라 각종 요인이 관여되어 치아 보건의 중요성이 격증되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해 "E"여고가 전국이나 일본에 비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은 학교 보건관리에 매우 중점적인 문제이다. 전국에 비해 "E"여고에서 높은 충치율을 보였음은 전국의 실정에 비해 경제적 여유로 인하여 단 것을 많이 섭취하였다는 사실과 구강처치의 부족과 정기적인 치과와의 방문의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치아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 치아 진료와 영양관리, 그리고 치아 보건 교육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3)

4) 결핵성 병

결핵은 우리나라의 보건 향상을 저지하는 소도성 만성질환으로 학교 보건규정에 의하여 3,700명 전원 X-Ray 간결촬영에 의하여 경증인 환자가 전체 11명으로 발견된 바 이는 전국에 비하여 높은 수치로 심한 과외공부와 영양부족 등으로 인하여 병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학교 보건에서 이들에게 학구보다 정양과 치료를 강구할 조치를 취하며 정기적 건강진단을 강력히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핵이 우리나라의 보건향상에 있어 중요한 저지요인이 됨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5) 기생충 검사

한국에서는 각종 많은 기생충 전염이 상재성으로 존재하므로 공중 보건상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학교 보건에서 봄, 가을 두 차례 한국기생충 학술회의에 의해

주1) 권이력·차철환: 일부 대학생의 신체발육 및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예방의학지 Vol. 1, No. 1, 1968

주2) 권이력·차철환: 일부 대학생의 신체발육 및 건강상태에 관한조사, 예방의학지, Vol. 1, No. 1, pp. 77

실시되고 있는 대변검사 조사결과는 [제4—1표] 및 [제4—2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편충, 회충, 동양모양선충, 12지장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보고¹⁾와 같은 순서로 병란 검사에서 존재.전충란보유자수는 53.2%였으나 추계 전충란 보유자는 47.2%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존재검사 후 결과에 대한 구충제 투약을 전충란보유자에 대해 실시하므로 이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며 일본의 보고와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높은 감염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 대한 비위생적 처리와 인분비료 사용 등 일본으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극심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중요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IV. 결 론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을 위해 무리한 공부물 하여야만 하는 여고생 3,7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력검사, 체질검사, 기생충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1972년도 시교육위원회에 보고된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들의 건강상태와 1970~72년에 걸친 3년간 고등학교생활중 신체발달 추이를 비교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체 계속

1972학년도 학생의 체위 평균치에 있어 신장 156.1cm, 체중 51.0kg, 흉위 73.8cm, 앞은키 84.9cm였고 전국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일본과 비교하여 선천적 요인이 작용하는 신장, 좌고에서 높은 수치를, 후천적 요인이 큰 체중, 흉위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3년간 신체발달 추이를 비교하면 3학년에서 2학년에 비해 체중 3.3kg, 흉위 0.3cm, 앞은키 0.6cm 감소 되었고 신체충실관경에 있어서도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충실도를 보였으나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 비해 충실도가 낮아졌음을 나타냈다.

2. 체질 검사

• 눈 :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학생이 전체학생의 19.0%로 이중 17세군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근시가 전체 9.16%, 난시가 0.07%로 나타났다.

• 귀, 목 및 코병에서 편도선비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 8.99%이며 일본 2.79%, 전국 3.13%에 비해 매우 높았다.

• 치아 건강상태는 전국 26.90%, 일본 63.26%에 비해 75.53%에 해당되는 학생이 충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 결핵성 병 : X-Ray 간접촬영 결과 전체 0.27%로 전국 여고생 0.19%에 비해 높은 감염율을 보였고, 일본의 경우 0.05%로 여고생에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몇명의 늑막염, 신경염, 빈혈, 신경증, 소아마비, 심장질환, 류마치스에 감염된 학생이 있었다.

• 기생충검사 결과 충란 보유자가 전체 53.2%, 추계 47.2%로 편충, 회충, 동양모양 선충, 12지장충 순으로 나타났고 볼보다 가슴에 감염율이 많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체격면에 있어서 전국 여고생에 비해 뒤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비교에서 선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체격면에서는 우수하나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위 및 건강상태에서 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이 뒤지므로 체력관리, 영양관리 및 보건학상에서 뒤졌으리라고 사료되나 체격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으로 보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국에 비해 “E”여고 고학년에 있어 선천적 건강 상태가 뒤지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학교 당국이 받아들여 학교보건 정책수립에 있어 특히 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 체력관리 및 영양관리면에 충실적인 지도를 하도록 시정하고 실시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다.

주1) 김순백·노인규 : 농촌지역의 기생충 감염도 조사, 공중보건잡지. Vol. 10, No. 2, pp.353~355, 1973



[제1표]

1972년도 전국, E여고 및 일본의 연령별 평균 신체 측정치표

연	형	학 생 수	키 (cm)	몸무게 (kg)	가슴둘레 (cm)	앞은키 (cm)
15	전 국	53,520	155.8	49.4	80.6	85.0
	E 여 고	1,191	155.3	50.3	78.3	84.3
	일 본	—	155.3	50.8	80.6	84.3
16	전 국	70,861	156.9	51.6	82.2	86.0
	E 여 고	1,226	156.2	52.6	78.7	84.8
	일 본	—	155.6	51.9	81.4	85.0
17	전 국	60,365	158.7	52.7	83.4	86.7
	E 여 고	1,283	156.8	50.1	79.7	85.6
	일 본	—	155.8	52.3	81.8	85.0

[제2표]

1972년도 전국 및 E여고 연령별 신체 충실지수 판정표

연	형	A (불량)	B (양호)	C (보통)	D (우량)	E (우수)
15	E교 학생수	47	198	437	364	145
	// %	3.9	16.6	36.7	30.5	12.1
	전국 %	5.6	18.2	40.3	23.5	12.4
16	본교 학생수	53	237	507	307	122
	// %	4.3	19.0	41.4	24.1	9.9
	전국 %	6.0	19.8	40.6	22.7	9.7
17	E교 학생수	76	305	534	247	121
	// %	5.8	23.8	41.6	19.1	9.8
	전국 %	7.0	20.8	40.3	22.4	9.4
Total	E교 학생수	176	740	1,478	918	388
	// %	4.8	20.0	39.9	24.8	10.5
	전국 %	6.2	19.5	40.4	29.9	10.5

[제3-1표]

1972년도 E여고 체질검사 통계표

연령		15 세	16 세	17 세	Total
시, 약		190	202	313	705
굴절 이상	근시	83	121	101	305
	원시	—	—	—	—
	난시	1	3	2	6
눈병	도라코오마	—	—	—	—
	그밖의눈병	2	4	2	8
듣는 힘 장애		—	—	—	—
귀병	중이염	—	2	1	3
	그밖의귀병	—	—	—	—
코 및 목	비질환	—	—	—	—
	축농증	—	3	2	5
	편도선비대	195	93	132	420
	선양종식증	—	—	—	—
피부	건열성피부병	—	—	—	—
	그밖의피부병	—	—	—	—
이	삭은이	927	872	965	2,704
	치주염	—	—	—	—
그밖의 신체이상 및 질병	결핵성 병	6(경증)	1(경증)	4(경증)	11
	능막염	—	1	—	1
	신장염	2	—	1	3
	빈혈	—	1	6	7
	신경증	2	1	1	4
	소아마비	6	2	6	14
	심장질환	—	3	4	7
	류마치스	1	3	1	5
검사 인원수		1,191	1,226	1,283	3,700

[제3-2표]

1972년도 전국 및 E여고 체질검사 통계표

연령		15		16		17	
지역		전국 %	E여고 %	전국 %	E여고 %	전국 %	E여고 %
시, 약		7.18	17.21	6.57	16.92	6.43	25.51
굴절이상	근시	9.82	9.44	7.95	10.02	9.82	8.02
	난시	0.79	0.04	0.63	0.09	0.61	0.08
눈병	도라코오마	0.15	—	0.17	—	0.15	—
	기타	0.77	0.02	0.51	1.83	0.58	0.24
듣는 힘 장애		0.34	—	0.36	—	0.44	—
귀병	중이염	0.30	—	0.32	0.18	0.31	0.09
	기타	0.32	—	0.15	—	0.14	—

[제3-3표]

1972년도 전국, 일본 및 E여고 체질검사 통계표(%)

연령		15			16			17		
		전국	E여고	일본	전국	E여고	일본	전국	E여고	일본
코 및 부	축농증	0.79	—	1.63	0.67	0.27	1.22	0.64	0.18	0.98
	편도선비대	1.41	17.04	3.31	2.63	9.80	2.72	2.25	10.15	2.31
	선양증식봉	0.06	—	0.01	0.03	—	0.01	0.02	—	0.08
전염성피부염		0.05	—	0.06	0.01	—	0.06	0.01	—	0.08
teeth	삭은이	28.36	78.02	61.95	25.87	73.22	64.10	26.48	75.34	63.74
	치주염	0.97	0.85	3.06	..	0.09	2.49	0.98	—	2.85
결핵성법		0.13	0.47	0.02	0.18	0.09	0.03	0.17	0.24	0.11
신장염		..	0.18	0.08	..	—	0.23	..	0.08	0.14
빈혈		1.91	—	..	1.83	0.09	..	1.74	0.45	..
소아마비		..	—	0.47	..	0.18	0.01	..	0.45	0.01
심장질환		..	0.59	—	..	0.33	0.27	..	0.27	0.24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았음

[제4-1표]

1972년 E여고 총계 및 추계 기생충검사 통계표

		충란보유자	회충	12지장충	요충	조충	간디스토마	동양모양충 선충	편충
총 계	3,615	1,924	969	10	1	3	1	58	1,271
		53.2%	26.8%	0.3%	0.02%	0.08%	0.02%	10.6%	34.6%
추 계	3,552	1,664	827	6	1	10	1	6	932
		47.2%	23.5%	0.2%	0.03%	0.3%	0.03%	0.2%	25.4%

[제4-2표]

1972년도 총계 및 추계 E여고, 서울시 및 일본 기생충검사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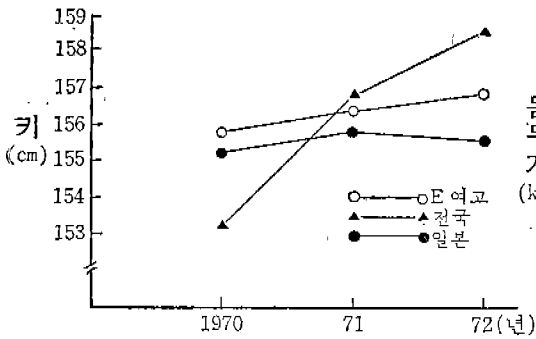
		충란보유자	회충	12지장충	편충	요충	조충	간디스토마	동양모양충 선충
총 계	E여고	53.2	26.8	0.3	34.6	0.02	0.08	0.02	10.6
	서울시	55.5	28.1	0.2	37.2	0.03	0.3	0.2	0.2
일본		—	0.49	0.01	—	0.09	—	—	—
추 계	E여고	47.2	23.5	0.2	25.4	0.03	0.3	0.03	0.2
	서울시	49.4	24.1	0.1	33.4	0.03	0.1	0.2	0.2

[제5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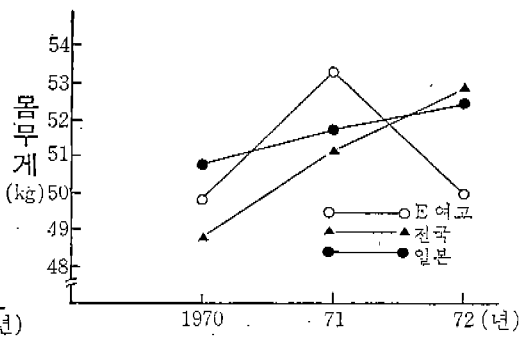
1970~72년도 전국, E여고 및 일본 신체 계측치표

년 도	지 역	키	몸 무 계	가슴 둘 레	앞 은 키
70 년 도 15 세	전 국	153.4	48.7	79.5	84.7
	E 여 고	155.9	49.9	77.5	85.4
	일 본	155.1	50.5	80.4	84.9
71 년 도 16 세	전 국	156.8	51.1	81.9	86.3
	E 여 고	156.2	53.4	80.0	86.2
	일 본	155.9	51.7	81.1	85.9
72 년 도 17 세	전 국	158.7	52.7	83.4	86.7
	E 여 고	156.8	50.1	79.7	85.6
	일 본	155.8	52.3	81.8	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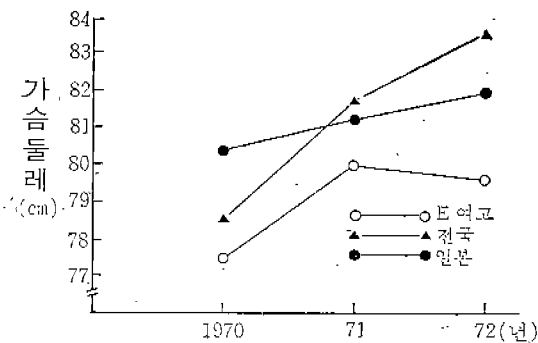
[그림 1-1] 년도별 신장 계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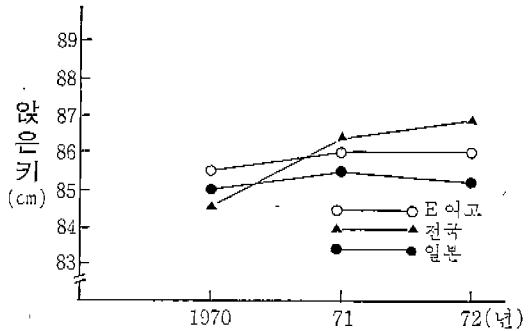
[그림 1-2] 년도별 체중 계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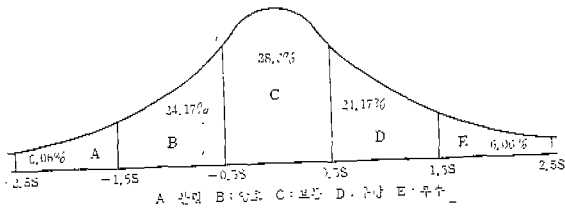
[그림 1-3] 년도별 흉위 계측치 비교



[그림 1-4] 년도별 좌고 계측치 비교



[그림 2] 신체 총실지수 판정급수의 비율도



참 고 문 헌

- 1) 김영제 : 지역사회 의학교육, 제2회 의학교육세미나에서, (1972)
- 2) 이영자 : 중고등학생의 성장, 발육과 영양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Vol. 4, No. 2, 1967.
- 3) 권이현 · 차철환 : 일부 대학생의 신체발육 및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Vol. 1, No. 1, 1968.
- 4) 박철빈 · 윤남식 : 한국 학생의 체력검사 보고서, 대한체육회, 1969.
- 5) 박해근 외 7명 : 한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체력에 관한 기초연구, 스포츠 과학보고서 6 : 21, 1969.

- 6) 오영근 · 박해근 · 오형석 : 한국 대학생의 신체발육에 관한 연구, 스포츠 과학연구소 7 : 81, 1970.
- 7) 윤덕진 외 : '한국 아동들의 지역별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지 Vol. 16, No. 8, 3, 1973.
- 8) 문교부 : 문교통계연감, 문교부, 1973.
- 9) 문부성 : 일본교육연감 1973년도(소화 48년) 교육신문사, Vol. 14. 1973.
- 10) 문부성체육국 : 소화 47년도 체력운동 능력조사보고서, 문부성.
- 11) 문부성 : 제22회 일본통계연감 소화 46년, 문부성 p. 544~545, 1971.
- 12) 문교부 : 연도별 전국 학생 신체검사 통계표(1965~1972) 문교부(유인물), 1973.
- 13) 김명호 : 학교보건, 수문사, pp. 169~171
- 14) 문교부 : 한국 남녀대학생의 신체 적성에 관한 연구, 문교부 Vol. 15, 1969.
- 15) 김재은 : 한국 아동 및 청년의 신체발달의 유형, 이화여대 80주년 기념논문집, 사회과학편.
- 16) 김경제 : 한국 농촌민의 신체발육에 관한 연구 Medical Diget 4 : 1579, 1962.
- 17) 김주성 : 한국 학생의 건강평가, 숙명여대 논문집 제4집, 287~324, 1964.
- 18) 대한체육회 : 세 신체총실지수표(여자편), 대한 학교체육회, p. 3~5
- 19) 한국 기생충박멸협회 : 학생기생충 검사통계표(서울지부편), 한국 기생충협회, 1972.
- 20) 김순미 · 노인규 : 농촌지역의 기생충 감염도조사, 공중보건잡지 10 : 2, 1973.

제 42 회 정 기 총 회

<일 정 안 내>

주 제—인간의 문제와 간호의 역할

기 간 : 1975년 4월 10~12일

장 소 : 전남 광주